

# “굴뚝 위 절박한 그들에게 ‘거기서 뭐하세요’ 물어는 봐야죠”

고공농성 현장 담은 문선희 사진전 내달 19일까지 예술공간 집 ‘인간에 대한 존엄성 묻고 싶었다’

2016년 은암미술관 ‘문다, 두번째 이야기’전에서 만났던 사진작가 문선희의 작품을 기억한다. 1980년 당시 초등학교생이었던 80명을 인터뷰하고, 그 경험이 잉태된 동네로 달려가 찍은 사진들이었다. 작업 초기엔 기억을 어떻게 찍어낼 것인가 고민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살았던 곳에 찾아가자 굴뚝길이, 담배락이 말을 걸어왔다. ‘탕!’, ‘내가 봤어’ 라고. 그들의 기억과 사진은 책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난다)로 출간됐고 2018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첫 작업이었던 구미 굴뚝을 찍은 사진 앞에 선 문선희 작가.

송전탑·광고탑 등 찾아 다닌 천일의 기록 사진으로 남겨 그저 ‘견디는’ 것으로 발언하는 그들의 고독 함께 느끼길 구제역 ‘문다’ 시리즈는 내달 6일부터 서울서...출판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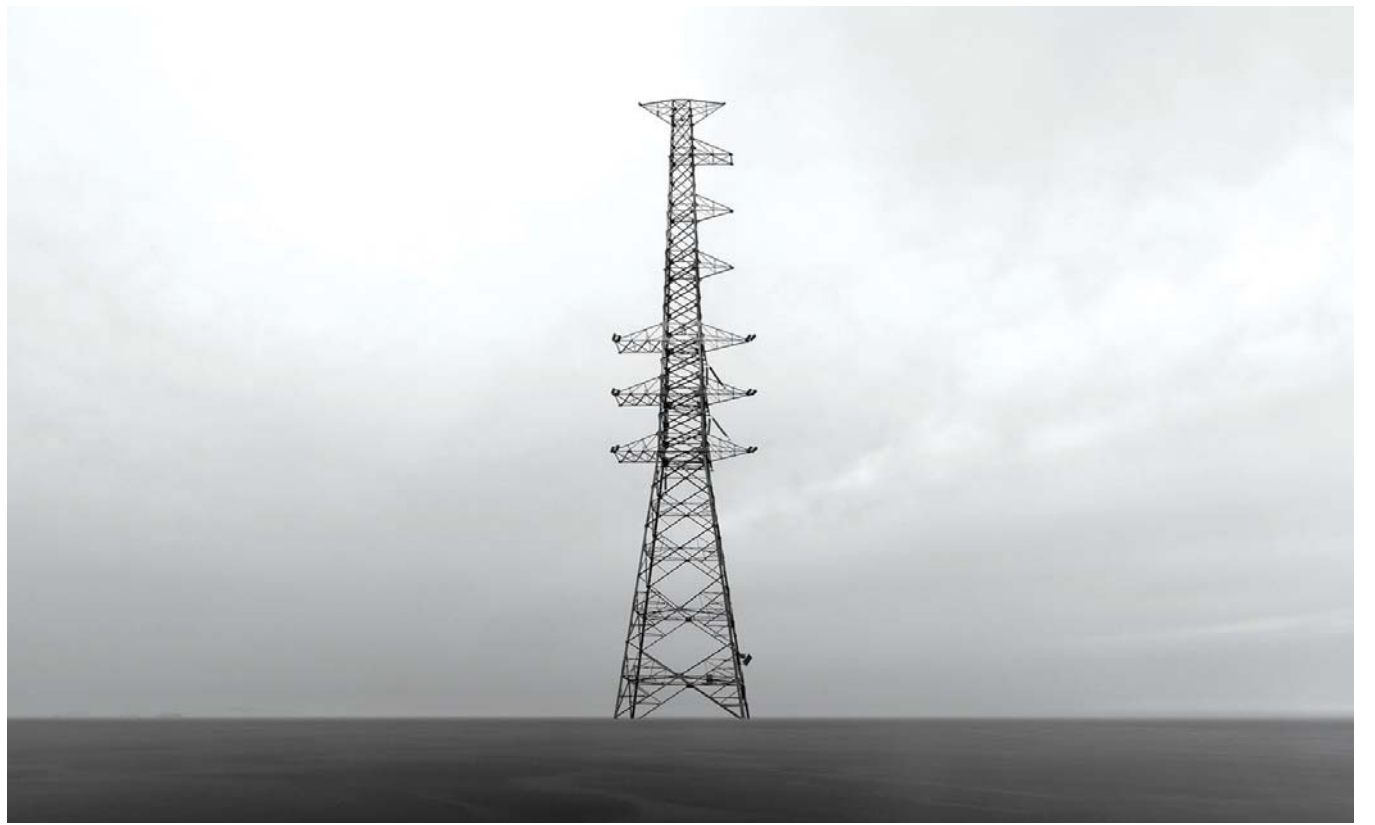
전남여고 앞 예술공간 ‘집’에서 개인전 (3월19일까지)을 여는 문 작가를 만났다. 흑백 사진 속 피사체들은 낯설다. 굴뚝과 송전탑, 광고탑 등은 낮게 깔린 하늘을 배경으로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그것들이 서 있는 곳은 아련한 바다 수평선 위다. “저거는 뭘까?” 궁금증에 환상을 들여다 보게 된다.

신작은 ‘고공농성’에 관한 이야기다. 출발은 2015년 신문기사였다. 노동자 차광호씨가 45m 회사 굴뚝 위에서 408일을 견딘 후 내려와 연행되기 전 남긴, “408일의 기록이 누군가에게 어떤 기준이 될까 무섭다”는 말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자가 내려오자마자 사라졌다. 26곳 중 10곳은 철거됐다.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삭제하는 상황을 보며 사진의 힘을 생각했다. ‘기록’이었다.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데 맞서 적극적으로 기록하자 싶었다. 모든 사진의 제목이자, 전시 주제기도 한 ‘거기서 뭐하세요’는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 사회가 절박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어 올라간 게 아닐까, 그렇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거기서 뭐하냐고 물어는 봐야할 것 아닌가.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한데, 우리는 참 인색한 한마디죠. 어쩌면 나에게, 당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굴뚝과 첩탑은 어느 업체 농성 현장이었을까 궁금하지만 몇 작품 보고 나면 장소는 의미가 없어진다. 작가는 플래카드 등 정보를 모두 지우고 고독한 느낌이 전달되기를 바랐다. 굴뚝 등이 서 있는 곳은 수평선 위다.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구조물을 데려가고 싶었고, 늘 위로를 받았던 영랑 백수 앞바다에서 해질녘에 촬영했다. 하늘 역시 가장 평범한 모습을 택했다. 수백일의 시간을 건너온 그들에게 시간은 흐른듯, 멈춘듯, ‘보통의 날’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확실기도 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걸 표현하기 위해 흑백으로 촬영했다.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기록한 ‘거기서 뭐하세요’ 시리즈는 굴뚝 등 구조물을 수평선 위에 배치한 작품이다.

구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자신이 그저 ‘견디는’ 것으로 발언하는 거죠. 무겁고 감당해온 이들의 ‘고독한 싸움’의 현장이죠. 그들이 갖는 생존의 두려움이 곧 나의, 우리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 고독을 함께 느끼길 바랬죠.”

올해 마흔인 문 작가는 대학원에 한 학기 다닌 걸 제외하곤 정식으로 사진을 공부하지는 않았다. 대신 이정록 작가와 교류하며 ‘시선’ 등에 대해 배웠다. 전남대를 졸업하고 비정규직 교사로 근무했던 그녀는 미술 작품을 관람하며 “이미지가 이성을 뛰어넘는 직관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한 인간이 존재를 걸고 발언하며 상상하기 힘든 시간을 버텨낸 공간이에요. 누구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성숙한 자세로, 자신이 그저 ‘견디는’ 것으로 발언하는 거죠. 무겁고 감당해온 이들의 ‘고독한 싸움’의 현장이죠. 그들이 갖는 생존의 두려움이 곧 나의, 우리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 고독을 함께 느끼길 바랬죠.”

## 담백하고 소박하게 추억 소환

광주대 김찬곤 교수 첫 동시집 ‘짜장면이 오면’ 펴내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김찬곤 교수가 첫 동시집 ‘짜장면이 오면’ (상상의힘)을 냈다. 작품집에는 지난 2008년 ‘창비어린이’로 등단을 한 이후 그동안 써 온 동시 56편이 수록돼 있다. 시집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짜장면이 오면’에는 학교, 집, 학원에서 겪는 일을 주제로 쓴 작품이다. 제2부 ‘배이유 배이유 쪽쪽쪽쪽’에는 자연 속 살아 있는 여러 모습을, 제3부 ‘눈을 꼭 껐다’

고’에는 아이들과 사회 현실을 그린 시가 각각 담겨 있다. 마지막으로 제4부 ‘아주 무서운 속담 하나’에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시가 주를 이룬다. “나는 짜장 그릇부터 벗기는데 / 아버지는 언제나 / 반찬 그릇부터 벗긴다.”(‘짜장면’) 표제시 ‘짜장면이 오면’은 단 석 줄로 된 짧은 시다. 하이쿠처럼 짧은 시인데도 작품은 자신과 부모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한다.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아



이에게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게 한다. ‘짜장면’이라는 일상의 소박한 소재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상욱 어린이문학 평론가는 “김찬곤의 동시는 소박하다. 정교한 기교도 없고, 선명한 주장도 없다. 그림에도 김찬곤의 동시는 늘 먹는 한 끼 밥처럼 쉽고 또 읽어도 쉬 물리지 않는다”며 “수수한 재료 그 자체의 맛을 잘 살린 어머니 손맛처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경험의 세계가 담백하게 버무려 있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아트광주19’ 주관사 광주미협 선정

9월 19~22일 DJ센터

광주시가 주최하는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9’ 주관사로 (사)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이하 광주미협)가 선정됐다. 아트광주는 광주시가 매년 공모를 통해 주관단체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행사는 오는 9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개최 10주년을 맞아 ‘1가구 1작품, 예향광주 예술장터’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아트광주는 갤러리부스와 작가부스를 공동 운영하며 다양한 사진 프로그램을 추진으로 잠재적 미술컬렉터를 양성,

시민중심 미술장터로 꾸릴 예정이다. 기본 운영 계획으로 갤러리부스 100개, 작가부스 80개, 특별전부스 4개를 통해 작가와 화랑, 컬렉터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을 모색한다. 미협은 이를 위해 자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전문가 그룹으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역량있는 커미셔너들을 위촉, 유럽과 미주·아시아의 화랑들과 국내외 우수한 화랑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운영과 공개적 참여로 지역 기획자들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 국내 미술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다

양한 연령과 장르의 작가부스를 마련하고 4개의 기획전도 열 계획이다. 그밖에 미술품 애호가 대상 이론강좌,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놀이 및 체험교육, 문화이벤트 및 공연, 아트상품 판매, 미술 전문도서 전시 판매, 이벤트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축제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광주미협은 아트광주를 2016년부터 4회째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내아트페어 평가에서 피평가기관 15개 중 유일하게 한 단계 상승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